

축사

김 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한·일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유니벨 재단이 공동으로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신 일본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세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지 오래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불과 100 년 후인 2100 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 천만 명으로 줄며, 약 300 년 후인 2305 년에는 0 명이 되어 국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사회복지인재 국제교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며, 일할 사람이 줄면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 군대에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면 결국 국가가 파탄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학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양국의 앞으로 남은 큰 일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낼 소셜워커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하여 사회복지인재를 서로 교류함으로써 공존공영하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한·일양국간의 인재교류를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辞



金 得麟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尊敬する内外の来賓の皆さま、また、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指導者の皆さま！

韓国社会福祉士協会として、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およびユニバーサル財団が共催する「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とりわけ、韓国にお出でいただいた日本の社会福祉の指導者の皆さまを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

現在、世界は少子化・超高齢化という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

日本は、すでに世界の最高齢国家になっており、韓国も平均寿命が延びていることや出生率の低下により、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今のような状況が続くと、およそ100年後の2100年には、韓国の人口は1千万人に減り、約300年後の2305年には0人になって国が消滅してしまいます。

こうした時期に、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が集まり、「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社会福祉人材国際交流に向けて—」というテーマでシンポジウムを開くことは、非常に意味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

少子化・超高齢化は国家的な災いです。学生が減ると学校が廃校になり、働ける人が減ると会社や工場が廃業になります。働ける人、軍隊に入隊する人、税金を納める人が減ってゆけば、結局、国の破たん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

韓国と日本は、高度な科学知識と技術を保有する高水準の人材を確保し、戦争による廃墟から立ち上がり、世界的な経済強国になりました。その日韓両国のこれから取り組むべき大事な課題は、より高度な社会福祉を実践し、また専門性を高めて社会福祉の発展を図ることです。

中でも重要な課題は、少子化・超高齢化に対応して、人類の生存と繁栄を守るため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育成することです。特に地理的あるいは政治的、また、社会文化的条件が類似している韓国と日本が、相互に協力し、社会福祉人材の相互交流を通して共存共栄の未来を開拓してゆくことです。

今日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高齢社会に対応するため、果敢で根本的な対策の準備とともに、韓日両国間の人材交流のための優れた方案が多く創出できるよう願っています。

最後に、開催のためにご苦労いただいた関係者の皆さまに改めて深く感謝します。また皆さまのご健康とご多幸を祈念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